

# 農學의 科學的 計劃 義務

第一支援團長 沈 鍾 燮  
農學博士

## 머 리 말

새마을 사업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건 새롭고 희망에 찬 역사적 사업인 것이다.

즉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랜동안 잠자던 농어촌을 일깨워 희망과 새로움을 심어주려는 운동이며 이것이 곧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 잘 살기 위한 길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전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사업 추진에 있어 그 일익(一翼)이 되기 위하여 1972년도부터 새마을 기술 봉사단을 조직하였으며 그 아래 새마을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기술지원을 통하여 봉사하여 오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금년에는 더욱 그 필요성을 느꼈고 더 많은 기술 지원이 요청되고 있어 그 계획의 하나로 지난 5월 25일부터 3일 동안 현지를 답사하여 실정을 파악한 후 과기총(기술봉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단장을 비롯하여 각 지단장 그리고 농촌의 여러가지 사업에 직접 관계가 많은 농수산 부문에서 축산, 농공, 토양비료, 임업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10여명의 조사단이 충남도의 협조를 받아 새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덕, 공주, 아산 등 네개 郡을 실제 답사하였다. 실제 답사에 있어서는 새마을 사업의 지휘타격적인 도의 새마을 사업계획과 군 및 마을의 계획을 먼저 검토하고 그 계획들이 각 마을에서 실천되어 가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도와 준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답사를 마치고 난 본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감을 말하여 보고저 한다.

### 1. 계획면에서 본 소감

도를 위시하여 군 그리고 마을의 계획들은 애써 흔적이 있어 대체로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별로 보면 어딘지 무리한 계획도 없지 않은듯한 느낌을 받았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한개의 목표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며 미달일 경우에는 그 계획을 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실천 가능성이 불확실한 계획은 당초부터 목표가 초

려지기 때문에 무책임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계획은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느낀 것은 계획이 획일적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늘여 놓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늘여놓은 느낌을 주었다. 계획은 부락에 따라 개인 사정에 따라 각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일에 순서가 있을 것이며 손쉽게 할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을에 따라 또는 개인 농가의 사정에 따라 하기 쉬운 일에서 부터 알맞은 계획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락 계획은 있으나 농가 각자의 계획은 보지 못하였다. 마을 계획은 각 농가 계획에서 나온 것의 종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농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시키니 따라만 가고 있는 느낌을 준다. 즉 계획에 자주성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 농가의 지식 수준이나 의식 구조 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일이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자주 자조하는 농민상을 길러 내려면 그리고 효율적이며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려면 각 농가가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모아 부락계획이 되고 부락계획이 모아 군 또는 도의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되려면 획일적인 계획에 앞서 마을사람들의 정신적인 계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어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꿈을 갖게 하는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 계몽 지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더라면 모든 일이 타율적인 느낌보다는 자율적인 면에서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과 같은 소감에서 앞으로는 어느 마을에 개별적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적 계몽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짜서 마을 사람들의 생각하는 자세부터 올바르게 갖게 하고 스스로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긴 안목의 새마을 사업에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 2. 계획 실천면에서 본 소감

충남 아산군 온양읍 좌부리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72년도 실적

72년도 새마을 운동실적은 200%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즉 마을 안길 확장, 회관 수리, 하수구 설치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한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가야만 할 것이며 이것이 습관화가 되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끝없는 정신 교육이 요청된다.

### 나. 농로개설 사업과 지붕개량사업

두 사업 모두 100%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정부지원이나 용자된 금원보다는 자력 부담이 많다.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자력이 거의 70% 부담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이 부락은 앞에 흐르고 있는 하천을 건너야 할 교량이 없어 매년매년 많은 홍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붕 개량도 일부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막연한 것 같이 보였다.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마을 공동으로 하여 나아가기에는 벅찬 것 같았다. 이러한 경우는 역시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병행사업

병행사업중에는 위생우물, 부엌 개량, 담장 개량등 모두 100%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축사는 목표에 미달이며 장독대 굴뚝 뜰광 짜리문 등등 모두 100% 초과 달성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손을 보아야 할 점들이 여기 저기 눈에 띄었다. 즉 숫자에 나타나 있는 것에 비교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매년 같은 일에 손을 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몇번씩 손을 보아야 하는 법이다. 금년에는 정부 지원이 있어서 하였지만 앞으로는 자력으로 하여야만 한다. 여기에 대비책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부락전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여져야만 할 줄 믿는다. “어떻게 오늘 보다 내일에 더 잘 살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소득증대 사업을 설명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소득증대사업이 성공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소득증대사업

이 마을의 소득증대사업 실적을 보면 양돈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 초과 달성하고 있다. 72년도 호당 소득이 224,560원으로 적은 편은 아니다.

사업별로 보면 공동 2모작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마을 표어를 보면 “양돈과 이모작으로 잘 사는 마을”이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돈은 계획에 미달하고 있다. 감자 재배도 소득증대계획에 들어 있었으나 재배 현황을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밖에 이태리포푸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4년생이 1,000원이라면 과다 책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밤나무 묘포를 보면 기술적으로 많은 지도를 받아야 하였다. 부업으로서의 가마니 자갈채취 수도작의 배증계획들은 전망이 좋아 보였다.

결국 잘 사는 마을이 되려면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겠고 소득이 증대되려면 부락 전체적으로 영농기술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으며 한편 유휴 노동력을 어떻게 이용하여 농업의 부수입을 더욱 많이 받아 들이느냐에 대한 계획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 3. 정신적 자세 확립에 대한 소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를 못하여 옳은 판단이 될런지는 모르나 내가 본 견지에서는 아직도 자조 근면 협동하는 정신면의 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 할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부락에 모여 앉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리의 청소나 집 주위의 정리가 잘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에 정신적인 면에서의 계몽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느껴졌으며 한 부락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자주 내려와 강연등을 하여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역시 나도 동감이었다.

## 결 론

금번 시찰을 통하여 느껴진 것을 요약하면

첫째: 개개농가가 자기 계획을 세워 그것을 토대로 모든일이 실천 되었으면 좋겠으며

둘째: 정부의 지원이 없을 때에 대비하여 마을 자체가 확고한 자립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수반되어야 할 영농기술을 비롯하여 제반 기술 보급이 철저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신면에서의 훈련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종래와 같이 처음에는 불이 붙었다가 모르는 사이에 그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만 새마을 사업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끈질긴 노력이 요청되는 소치라 하겠다.

우리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